

한국 낙농의 내일을 위한 검토

본회고문. 성원목장 강 성 원

〈서울우유협동조합장〉

목 차

1. 종축개량에 역행
2. 조사료 생산에 소홀
3. 사양기능 합리화에 둔감

본래 낙농은 단기적 계획을 가지고는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낙농은 경영상 손익분기점을 넘어 서기 까지도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돼지같은 경우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낙농은 아무리 호황이라 해도 그리 큰 이익을 바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우는 15개월 안팎에 새끼 한마리를 그것도 암, 수 50의 비율로 분만하기 때문이다. 물론 호황이라 해서 유우값이 갑자기 치솟는 일은 더욱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신 일단 체도에 올라 서면 쉽게 망하지도 않는 것이 낙농이니 이 점은 낙농의 장점이요, 장사속을 모르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낙농은 장기계획에 의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되도록이면 평생의 생업으로 시작함은 물론 자손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2년 가까이 낙농에 이상 붐이 일고 있어 다소 염려되어 이 글을 쓴다.

이상붐이라 함은 낙농의 호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그 호황이 붐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호황이 절름발이 호황이기 때문에 붐, 또한 이상붐이라 하는 것이다. 이 호황은 오로

지 엄청나게 비싼 소 값과 비교적 싼 농후사료 값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호황을 절름발이 호황이라 일컫는 것이다. 가령 이 호황이 아주 저렴한 생산원가, 안정된 수요 공급, 일반적 소득의 향상 등에서 오는 것이라면 아주 문제가 없겠으나 이 엄청나게 비싼 소 값은 어차피 언젠가는 수입 실비의 안팎선에서 안정될 것이며 비교적 싼 농후사료 값은 이 또한 국제시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 싼 채로 있을 리 만무하다.

절름발이 호황과 이상붐이 상호 상승 작용을 하며 2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는데 얼마나 더 계속 될지는 우리 낙농인들도 알 수가 없고 다만 언젠가는 호황도 붐도 사라지고 그때까지 낙농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쥐어 찌며 살아남거나 그럴 여지도 없으면 도태되거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때 우리들 진정한 낙농인들은 이 호황, 이 붐속에서 영원히 살아 남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 2년간 낙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새로 시작한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진정한 낙농인의 기준에서 볼때 얼마나 빛나간 운영을 해왔는가 한번 따져 보기로 한다.

1. 종축 개량에 역행

아무리 능력이나 체형이 좋지 않은 놈이라도, 아무리 나쁜 유전인자를 가진 놈이라도, 새끼를 배주는 한 새끼를 내서 판다. 수정할 때 어떤 정액이전 따질 것 없다. 귀찮은 개체 기록같은 것

은 빗하러 하며 등록에 돈은 왜 드리느냐, 우리들 젖소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종축 개량이 아니라 개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 봐야 할 것이다. 예측되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낙농 선진국들이 이미 선진국이 된 지금에 있어서도 정부와 낙농인이 합심하여 유우 개체의 능력 향상, 생산성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가 지난 2년간 종축개량에 소홀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이 문제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낙농인의 계속되는 목표는 적은 마리수로 많은 우유를 생산함으로써 사료나 인력의 단위 생산고당 소요량을 줄여 나가자는 것이라 할 때 이 종축문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호황이나 붐이 사라졌을 때 얼마리 착유해서 200kg의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과 같은 얼마리를 착유해서 150kg 생산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결론은 자명해질 것이다. 이 차이는 한 사람은 살아 남아서 낙농을 계속할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고생 고생 끝에 도태되어 전업하게 될 것이다.

2. 조사료 생산에 소홀

낙농을 문자 그대로 농업의 일각에 넣은 것은 낙농이 농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농이라는 것이 젖소를 먹이고 그 젖을 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젖소를 먹인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 그 생산품을 먹이는 것을 뜻함으로 낙농의 근본은 결국 농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낙농인들은 이 헛된 절름발이 호황과 일시적으로 비교적 낮은 농후사료 값에 현혹되어 낙농의 근본인 농사를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농사는 역겨운 것일 수 있다. 어떤 농사건 농사란 그 겪는 고생에 비해 받는 보답이 언제나 적어왔다. 어떤 때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 농사를 온통 망치는 경우도 있다. 낙농을 농사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만일 낙농을 농사 짓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낙농(酪農)이 아니라 낙공(酪工)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소는 초식동물이다. 그 큰 배는 풀로 채워지지 않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목야지(알팔파, 오차드그라스, 레드크로바 등)나 사료포(옥수수, 수수, 호밀, 귀리 등)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kg당(건물로) 약 150원 안팎, 농후사료는 160원 안팎, 벧짚은 30~40원, 영양가나 열량은 농후사료의 그것이 조사료의 그것보다 배나 된다. 따라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농후사료는 싼 사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농사 짓는데는 위험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지만 농후사료나 벧짚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 이런 알팍한 계산 때문에 우리 낙농인들은 조사료 생산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며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술지게미나 비지, 또는 옥피 등을 먹이기도 한다. 급해서 이런 것이라도 먹어야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양질의 조사료가 많이 부족할 때 유우는 발병율이 높아지고, 임신율이 낮아지며, 생산성이 줄어 들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낙농인들은 이 호황을 맞아 낙농인 답지 않게 평안히 살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쥐어짜서 목야지나 사료포를 사서 개간하여 분뇨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목야지와 사료포에 투입할 것이며 모자라면 계분이나 돈분을 더 구입하여 투입함으로써 지력을 증진시켜 평수도 늘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고도 늘려서 이 호황, 이 붐이 한낱 물거품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낙농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양 기능 합리화에 둔감

사료의 효율성을 포함한 사양 관리, 적절한 운동 포함 유우의 건강관리, 노동 생산성 제고를 포함한 시설의 기능관리, 위생적 우유 처리를 포함한 경제적 기계화 등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이 호황, 이 붐으로 인하여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 사양 관리에 관하여

- ① 조사료의 급여량을 전체 사료 급여량(건물)의 5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② 조사료의 질에 따라 농후사료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첨가하고 있는가.

③ 개체당 사료 급여량을 그 질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하고 있는가.

④ 작유우가 각기 정해진 양의 사료를 사실상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⑤ 흠어지거나 흘려서 버리는 양이 많지 않은가.

⑥ 엔실리지는 변질된 것을 먹이지 않도록 일정한 두께를 확실히 먹이고 있는가.

둘째, 유우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① 최소한 필요한 운동을 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기능이 되어 있는가.

② 유방염, 부제병, 간질충, 송아지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예방 조치와 구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③ 치료에 있어 약물 과다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④ 치료 기록은 빠짐없이 하고 있는가.

셋째, 시설의 기능 관리에 관하여

① 작업 동선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짧고 능률적인가.

② 불필요한 굴곡이나 경사는 없는가.

③ 우사의 통풍 장치는 충분한가.

④ 배수 조직은 완벽한가.

⑤ 분노는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⑥ 유우가 더위와 추위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가. 특히 더위에 대한 대책은 완벽해야 한다.

⑦ 꼭 필요한 추가적 시설이 있는가.

넷째, 경제적 기계화에 관하여

① 우유 처리에 있어 우유의 위생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또는 새로운 조치가 필

요한가.

② 분노 처리나 퇴비 처리에 경제적 기계화가 어떤 수준이면 유리한가.

③ 조사료의 증산과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어떤 수준의 기계화가 소요되며, 기계화의 순서는 어디서 부터 함이 효과적인가.

이상 무엇들을 이 황금 기회에 생각하고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대충 거론해 보았다. 이 문제들 중에는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만 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있고 생각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며 그 위에 돈까지 넣어야 해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늘 끊임없이 생각만 한다 해도 우리 목장의 경영 상태는 한결 나아질 것이다. 혹시 그 생각에 맞추어 땀흘려 고쳐 나간다면 우리 목장의 경영 상태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만일 그 위에 자금을 가능한대로 투입한다면 그것은 최선이며 우리 목장의 경영 상태는 아주 우수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두뇌와 부지런한 몸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언제나 자금 때문에 애를 먹는 처지였었다. 그런데 호황과 붐에 힘입어 자금을 다소는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 생활은 다소 뒤로 미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이 우리가 하고 있는 낙농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때문이며,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이 기회는 조만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 낙농은 영원히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 乳房의 質 ◇

소의 유방은 젖의 분비, 저장에 직접 관여하는 혈관, 분비세포, 유관(乳管), 유조(乳槽) 등의 조직과 이들을 받히고 공간을 메우는 막이나 인대, 근육, 지방조직 등으로 되어 있다.

전자가 많은 것을(혈관, 분비세포, 유관 유조 등) 선질유방(腺質乳房)이라고 하며 비유성(泌乳性)이 높고 후자가 많은 유방은

육질유방(肉質乳房)이라 칭하며 이 유방은 그 크기에 비하여 비유성이 빈약하고 젖짜기도 힘들어 바람직한 유방이 아니다.

착유직후의 수축이 큰 것과 유경부(乳鏡部)에 세로줄이 많이가고 건유기에는 착달라 붙은 것 같이 수축이 심하고 속이 비어있는 유방은 질이 좋은 유방으로서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 외관과 촉진으로 유방의 질의 양부를 판단할 수 있다.